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형 도제제도! 일학습병행제

일학습
병행제

“

일학습병행제와
함께 하세요

”



한국폴리텍Ⅷ대학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형 도제(徒弟)제도!



일학습병행제란?

- 독일·스위스 도제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 기업이 학생 또는 구직자를 채용,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교육 훈련을 병행,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합니다.
- 주로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론교육을 시켜 현장중심으로 양성합니다.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의 현장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지식을 담은 교재로 가르칩니다.
-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인력을 활용할 산업계가 직접 평가해서 자격을 줍니다.(신 직업자격 취득)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젊은 인재를 선점해서 장기근속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재로 키울 수 있습니다.

-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물립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장기간(6개월~4년)의 교육훈련, 유능한 선배직원으로부터 1:1 지도 등으로 기업 적응이 쉽고 애사심이 높아져 이직률이 낮습니다.

청년층 첫 직장 근속기간 ('15년 통계청)

1년 6개월

■ 교육훈련 미스매치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는 기업에 꼭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교육훈련내용을 기업이 결정하고 기업에서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기업에 꼭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교육 또는 수습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화려한 스펙을 쌓은 사람을 채용해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일학습병행제는 정부로부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없이 기업에 맞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교육·훈련비용 ('15년 경총)

5,959만원

■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되고,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기업은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취업맞춤반) 협약 업체 및 참여자와 동등한 병역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1순위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 업체, 방위산업체

- 맞춤형기병 제도를 통해 학습근로자는 관련분야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일학습병행기업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우대(0.5점 가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참여대상 기업

- 기술력이 높고, 현장훈련의 역량이 충분하며, 인력양성에 대한 CEO의 의지가 강한 기업이면 기업규모, 업종 등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직무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려는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이 안정되고 인력양성에 대한 CEO 의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7개 분야는 우선 선정합니다.

참여방법

- 참여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산업별 단체(17개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또는 HRD-Net (www.hrd.go.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신청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서는 단독기업형 또는 공동훈련센터형 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학습병행제의 종류 및 특징 |

단독기업형

-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충분한 기업이 선택하는 유형
- 기업이 단독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훈련과 현장외 훈련(자체 또는 위탁)을 실시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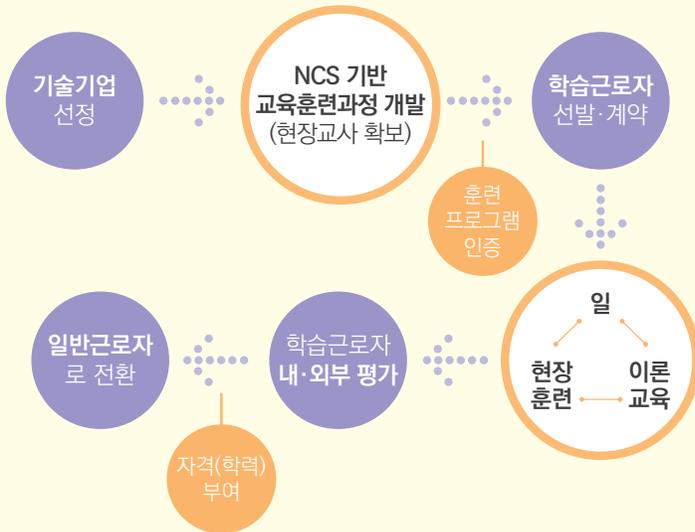
참여 희망 기업이 직접
신청서 작성·제출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

-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 선택하는 유형
- 일학습병행훈련을 실시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훈련하는 형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신청서 작성·제출
(50인 미만)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참여신청 및 선정

참여 희망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증

사업주는 NCS 및 기업별 직무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계 참여)이 적합 여부를 인증

* 교육훈련과정은 정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개발비용을 지원

③ 일·학습 병행 근로자(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사업주는 학생 또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

④ 일과 학습 병행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인증받은 교육훈련 과정에 따라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실시

⑤ 학습 결과 평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훈련 목표의 달성 여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별단체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수료증 및 자격 부여(신 직업 자격)

⑥ 일반 근로자로 전환

학습 결과 평가에서 합격하면 학습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

참여 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학습근로자 모집지원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교육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교재 개발 지원
 - 정부에서 교육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기업현장교사 및 행정담당자 양성교육
 - 정부에서 훈련기관을 지정, 무료로 교육

학습근로자 모집지원

- 전국 고용센터(83개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소)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기업과 학생구직자를 연계해 주는 전용 포털 구축 중

교육훈련 운영지원

지 원 사 항	지 원 내 용
현장훈련(OJT) 지원	실비
현장외훈련(OFF-JT) 지원	실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기업당 연간 800만원 한도 (*15년부터 연간 400~1,600만원 차등지원)
행정담당자 수당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학습근로자 채용지원금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40만원 한도

-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 과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비용과 기업 현장교사 및 행정담당자 양성교육만 지원함
- ※ 현장 교사 수당

(단위: 만원)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이상
월 수당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S사

일학습병행제, 우수 인력들을 한 발 앞서 미래 인재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대졸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왔으나,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없어서 번번이 기초부터 다시 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되어 인력 채용공고를 내어보니 마이스터고 출신 등 우수 인력의 고졸자들이 많이 응모하더군요. 앞으로 기업입장에서 이들을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미래 인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D사

정부지원으로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는, 이게 바로 일석이조죠!

“우리회사는 ‘단독기업형’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 기업형 일학습병행제는 실무교육과 심화이론 교육 그리고 현장실습까지 우리기업에서 한번에 종합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제과제빵기계 제작기술 중급 수준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구요. 학습근로자는 학력과 스펙이 아닌 기술과 능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되는거죠. 이게 바로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의 시작이 아닐까요?”



인재가 없어 고민하시는 사장님!

학교 교육이 현장에 맞지 않다고 불평만 하실 건가요?
기업이 참여하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젠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하세요.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 KOREA POLYTECHNIC VII



한국폴리텍Ⅶ대학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교육단지 2길 28)

Tel. (055)260-1111~2, 260-1108

Fax. (055)260-1123 전자팩스. 0303-3261-1106

<http://changwon.kopo.ac.kr>